

02

수양

숲 속 난초가 온종일 은은하게 향기를 피우지만
스스로 그 향기로움을 모르는 것과 같이
군자는 자기를 위해 수양할 따름이다

如深山茂林之中 有一蘭草終日薰香 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퇴계 이황 『언행록』 中

마음을 기를 때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맹자 진심

養心 莫善於寡欲
양 심 막 선 어 과 욕

In nurturing the mind, nothing is better than to
restrain one's desires.

寡 적다 欲 욕심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대학 전7장

心不在焉 視而不見

심 부 재 언 시 이 불 견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청 이 불 문 식 이 부 지 기 미

When your mind is elsewhere, you can not
see what you are looking at, hear what you are
listening to, or know the taste of the food you
eat.

視 보다 聽 듣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요,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요,
 양보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맹자 공손추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측 은 지 심 인 지 단 야 수 오 지 심 의 지 단 야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사 양 지 심 예 지 단 야 시 비 지 심 지 지 단 야

The sense of concern for others is the seed of benevolence; the sense of shame is the seed of righteousness; the sense of deference is the seed of propriety and the sense of right and wrong is the seed of wisdom.

端 단서 羞 부끄럽다 是 옳다

하늘은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고생스럽게 하고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함이다.

맹자 고자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천 장 강 대 임 어 시 인 야 필 선 고 기 심 지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노 기 근 골 아 기 체 부 공 핏 기 신

行拂亂其所爲

행 불 란 기 소 위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소 이 동 심 인 성 증 익 기 소 불 능

將 장차 降 내리다 任 맡기다 志 뜻, 의지 膚 살갗
 勞 노력하다, 힘쓰다 筋骨 근육과 뼈 餓 굶주리다 乏 가난하다
 拂 어긋나다 亂 어지럽다 益 더하다

When Heaven is about to assign a big task to someone, it first tortures his mind, labors his body, makes him starve, impoverish him, obstructs his every plan. All of these challenges are means to inspire his mind, reinforce his endurance, and expand his faculty.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타인을 위한 일들에 충실하였는가?
친구와 교제함에 신의가 있었는가?
배운 것을 복습하였는가?

논어 학이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오 일 삼 성 오 신 위 인 모 이 불 충 호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여 붕 우 교 이 불 신 호 전 불 습 호

Each day I reflect on myself threefold: in
planning for others, have I been disloyal? In
befriending others, have I been untrustworthy?
Have I not practiced what I had learned?

省 살피다, 반성하다 謀 꾀하다, 도모하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

논어 선진

過猶不及

과 유 불 급

Excesses are the same as shortages.

過 지나치다 猶 ~과 같다 及 미치다, 이르다

제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천하기에 저의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 힘이 부족한 자는 중도에 그만두니,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다.

논어 용야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비 불 열 자 지 도 역 부 족 야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畫

역 부 족 자 중 도 이 폐 금 여 획

說 기뻐하다, 좋아하다 廢 그만두다 女(汝) 너, 자네 畫 긋다

A disciple asked, “It is not that I do not enjoy your teachings, but my ability is not enough.” Confucius replied, “People with insufficient ability tend to give up half way. You are now limiting yourself without trying it.”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원망이 적을 것이다.

논어 위령공

躬自厚而薄責於人 則遠怨矣

궁 자 후 이 박 책 어 인 즉 원 원 의

If you admonish yourself strictly and show
tolerance to others, then you might not hear
complaints from others.

躬 몸, 자신 厚 두텁게 하다 薄 얇다, 적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허물이다.

논어 위령공

過而不改 是謂過矣

과 이 불 개 시 위 과 의

To Make mistakes without correcting them,
this is a real mistake.

過 허물, 잘못 改 고치다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함에 있다.

맹자 이루

人之患 在好爲人師
인 지 환 재 호 위 인 사

It is endemic that people love to admonish others.

患 근심, 병통 爲 되다 師 스승

진실로 날마다 새롭고자 한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

대학 전2장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구 일 신 일 일 신 우 일 신

If you really wish to be new every day, you
should renew yourself on a daily basis.

苟 진실로 又 또한

말은 행실을 돌아보며
행실은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

중용 13장

言顧行 行顧言
언 고 행 행 고 언

Your words and actions should be in accord.

顧 돌아보다

도는 현실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니,
현실과 떨어지면 도가 아니다.

중용 1장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도 야 자 불 가 수 유 리 야 가 리 비 도 야

The Way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reality even for a moment. What can be separated from the real world is not the Way.

須臾 잠깐 離 이별하다, 떨어지다